

보도시점 2026.10.19.(월) 15:00
< 10.20.(화) 조간 >

배포 2026.10.19.(월)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2조원 출범, 대기업-소부장기업 상생협력 본격화

- 김정관 장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트리니티팍 구축 현장 방문
- SK하이닉스-한국무역보험공사-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간 무역금융 협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반도체 대기업-소부장기업간 상생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19일 용인 일반산단을 방문하여 SK하이닉스의 용인 1호팍 구축현장과 트리니티팍*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어서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출범 협약식과 소부장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대기업이 누리는 호황이 소부장기업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반도체 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 SK하이닉스 용인 1호팍 내 양산급 실증테스트 팍 구축, 소부장 양산타당성 평가·검증 지원('25~'31년, 국비 3,736억원, 지방비 577억원, 민자 4,433억원)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생 무역금융의 일환인 수출공급망 강화보증은 지난 '25.8월, 민·관협업에 기반하여 출범하였으며, 그간 자동차·조선·철강 등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번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은 기존 단일기업 협약으로는 최대 규모로서, SK하이닉스 및 4개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이 출연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여 2조원* 규모로 출범한다.

* SK하이닉스+은행 1천억원 출연 → 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20배)으로 2조원 조성

지원조건은 SK하이닉스의 추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심사 등 절차를 거쳐, 협약을 맺은 4개 은행을 통해 우대금리와 보증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체적 조건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년간의 중기 100% 보증을 제공하고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특별 보증료를 적용한다. 은행은 최대 2.5%p 인하된 우대금리

및 3년간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9월까지 우리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대보증한도는 타 산업대비 50% 확대 운영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력업체는 설비투자과 기술개발에 활용할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상생 무역금융은 향후, 방산·원전·바이오 등 분야로 확대하여 연내 10조원 규모 재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장시찰 중에 “전세계 메모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나, “공기 단축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어지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을 최소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의 온기가 중소·중견 기업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함께성장 프로젝트(R&D), 신규 반도체 펀드, 인력양성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첨단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반도체과	담당자	사무관	배재형 (044-203-4141)
	무역정책관	책임자	과 장	민문기 (044-203-4040)
	수출입과	담당자	서기관	김애경 (044-203-4041)

참고1

행사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9일(월), 15:00 ~ 16:30
- 행사장소 :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홍보관
- 행사내용 : 반도체 팹 및 트리니티팹 구축현황 점검,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출범 협약식 및 간담회 개최
- 참석자

- 정부 : 산업통상부 장관
- 기업 : SK하이닉스, 라온로보틱스, 퓨처젠, 에스이티, 한양이앤지
- 시중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유관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 세부계획(안)

시 간		세 부 내 용
15:00 ~ 15:30	30'	▶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현장시찰
15:30 ~ 15:40	10'	▶ SK하이닉스-무보-은행간 수출공급망강화보증 업무협약 (총 출연금 : 1,330억원, 지원규모 : 2조원)
15:40 ~ 15:50	10'	▶ 은행별 1호 보증서 전달식
15:50 ~ 16:30	40'	▶ K-반도체 상생 무역금융 간담회

※ 업무 협약식, 보증서 전달식, 모두말씀까지 공개(현장시찰 비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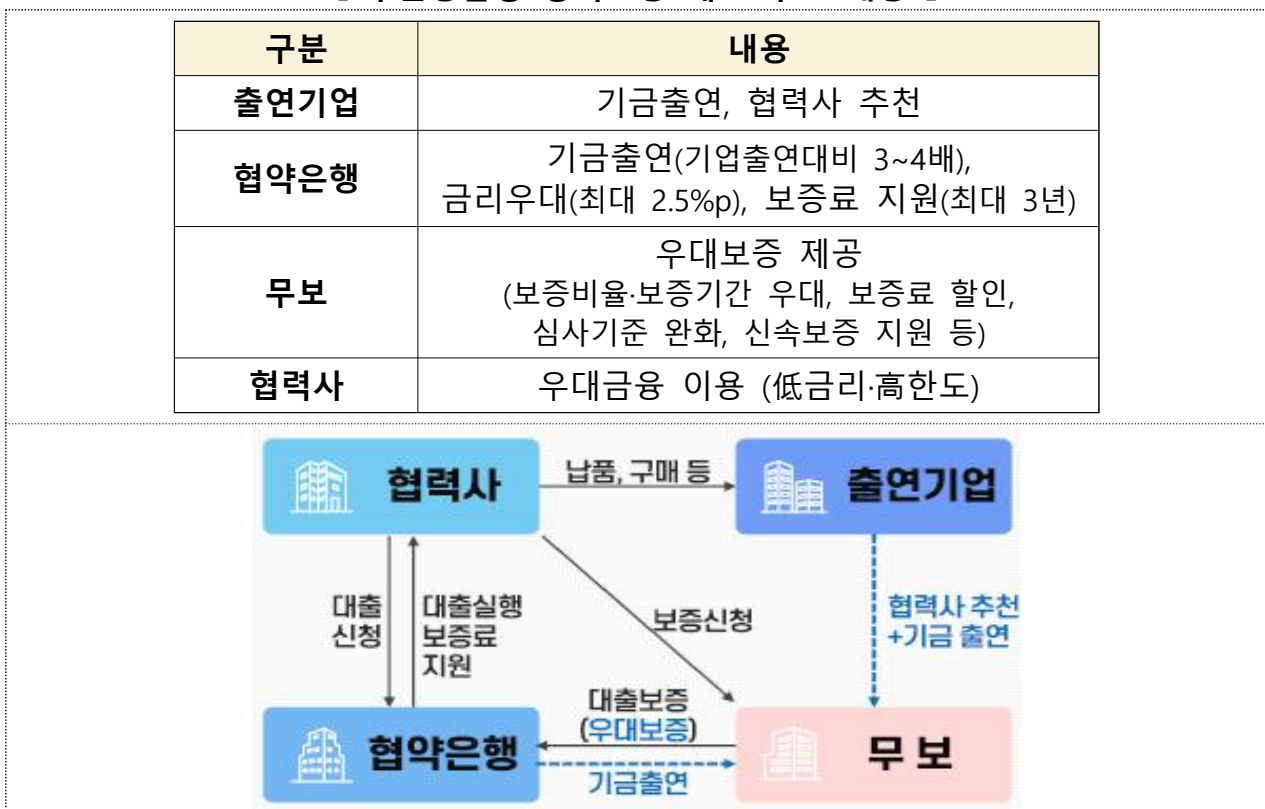
참고2

반도체 분야 상생 무역금융 주요 내용

□ 상생 무역금융(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제도 개요

- (개요) 산업별 대표기업과 은행의 출연금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운용 배수를 결합해 中企 협력사에 저비용·고한도의 우대금융을 지원
- (우대조건) 무보보증비율(90%→100%), 보증기간(1년→3년), 보증료 할인(25~35%), 은행보증료 지원(최대 3년), 금리우대(2.0~2.5%p ↑) 등

【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제도 주요 내용 】



- (운영현황) '25.8월 제도 출시 이후 현대차, HL만도, 포스코, 한국 콜마, 무신사,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과 협력 체결
- SK하이닉스가 참여하게 되면서 총 4.4조원 규모 협력사 금융지원 가능
- (향후계획) 방산·원전·바이오 등 중요 수출산업으로 제도 확산 추진